



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발행인	김영희
편집인	김영희
편집장	김영희
발행처	외대학보 (29961-4152, 961-4151)
전화	외대 학보 (29961-4152, 0335-30-4112)
주소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학산리 589
인쇄인	김영희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153호

THE OE DAE HAGBO

제 579호 1992년 5월 5일 (화)  
제3중 우편물(가)인정

1

## 전민항쟁 조직화로 민주정부 수립이 과제

### 구체화된 투쟁 방향성 제시하지 못했던 점이 오류 민주대개혁 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민자당 총력 투쟁 전개해야

91년 5월투쟁평가  
92년 5월투쟁 과제



민생 민권 투쟁의 조직화와 5월의 계기적 투쟁 중심으로 전국민적 투쟁 전진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 투쟁 수위 조절 못한 91년 5월 투쟁

지난 91년 5월은 정치대쟁 강경태세의 타살 사건으로 인한 반민자당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연이은 분신 정국과 함께 87년 이후 최대의 대중투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열기도 강경태세로 인해 5월 8일 이후 급속한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또한 정권의 김기실세 유서대립 조력사건과 본교 6·3투쟁 등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주춤하면서 오히려 민주민주운동(이하 민민주)인 양은을 이 후 민생 민권 투쟁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지난 5월 투쟁은 연호의 수서비대, 내용외유 사건, 옹고등 등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강경 태세로 대국민투쟁의 촉발점을 형성했지만 대중적이고 완강한 전국민적 민주항쟁(이하 진민항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당시 투쟁지도부였던 '강경태세 살인단' 규탄 및 공안정치 분쇄를 위한 반국민대회의(이하 대회의)가 전국적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도이념의 문제와 공안외유 사에서 노경진 타도에 상응 발전하는 투쟁 규모를 확대하지 못한 투쟁의 폭과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5·9 반민자당 투쟁 이후 급화된 노경진 타도라는 투쟁 구호는 구체적인 대국민투쟁의 상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단순히 상징적이고 선전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가장 중요한 오류로 지적되는 것은 5월 19일 강

해 총력전을 수행하는 것 역시 5월 투쟁에서 제기되는 중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 5·9 반민자당 투쟁을 준비하자

5월 총력 투쟁의 첫번째 계기적 사안은 9일 민자당 살인단이다. 지금까지는 3당 합당 규탄과 민자당 해체 투쟁에 집중했지만 5월 9일 반민자당 투쟁은 이전과는 다른 투쟁의 내용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 3·24총선에서 3당 합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단순한 3당 합당 규탄 투쟁은 일정정도 희석되었다는 판단 속에서 이제는 보다 절박으로 심화된 반민자당 투쟁이 제기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군부세자 무로 부정선거 규탄 투쟁의 재조직화와 함께 제1반 민주대개혁 쟁투 투쟁이 주요 사안이 될 전망이다. 또한 5월 부패 진행된 7차 교육규획과 관련하여 합의를 이행과 국보법을 비롯한 약법철폐, 양심수 석방 등도 5·9 반민자당 투쟁의 핵심내용이다. 때문에 이러한 민주대개혁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슈로 조직화하는 문제가 5·9 투쟁을 앞둔 국민들의 과제이다.

#### 올해 5월 투쟁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지난 5월과는 달리 올해 5월은 3·24총선 이후 민자당 대통령 자유경선 제 폐지 등 논란의 정치장세가 지속되면서 군부세와 부정선거 규탄투쟁 등 정치적 쟁점사안들이 중점으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3·24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주개혁에 대한 열망은 5월 투쟁의 핵심사안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민생 민권 투쟁의 구체적 민주대개혁의 청사진이 요구되고 있다. 5월 투쟁은 하반기 대통령 선거 투쟁을 앞두고 대중적 투쟁역량을 구축하는 시기로서 민주생존투쟁을 위시한 일상 대중투쟁의 활성화가 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노동운동 전역의 총애임금 저지 투쟁을 필두로 일어나고 있는 민생민권 투쟁의 조직화와 함께 5월이 상징하는 계기적 투쟁 사안들을 중심으로 강위적인 반민자당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전국민적 투쟁 전진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과제 중선에서 나타난 전국연합의 노선인 민주대연합의 강화와 함께 각 지역 민주대연합의 구축이다. 그것은 향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하반기 대민 투쟁과 진민항쟁을 조직화하는 토대 구축 차원에서 각 지역 간 투쟁역량을 정비하고 일상 대중투쟁을 끊임없이 조직, 추진하는 사활적 조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투쟁의 집중점들을 형성하면서 그 시기에 맞는 쟁점 사안을 봉



### 민주정부 수립의 꽃 한송이를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찍 돌아 오겠습니다."  
▲(고) 강경태 열사의 유서가 되어버린 부모님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임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순수하지만 하고, 부모님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열정만을 가득 안은 이방의 청년학도를 노경진은 최파이라고는 것으로 무참하게 맞아갔고 말았다. 백골단의 최파이로 난타로 강경태 열사를 맞아갔고 또다시 최후의 거스로 김규정 열사를 맞아가는 등 노경진은 집권 말기의 말살을 멈추지 않았지만, 박승희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열사들의 잊지 못할 분신 정국으로 5월의 거리는 민중들의 특채정권 타도의 열기로 뜨겁게 뜨겁게 타올랐다.  
▲ 말 그대로 작년 5월의 거리는 인신실험을 이루었고 '민자당 해체, 노태우 정권 타도'의 함성이 파도가 되어 전국을 휩쓸었다.  
▲ '개강과 더불어 시작된 '교육제정 확보'를 쟁점으로 각 대학에서 진행된 등록금 투쟁에 요구하며 위력을 과시하며 대학당국에서 배후조종하며 학원연합의 고베를 틀어쥐고 휘둘러 대대니. 이제는 유권자의 주권을 도둑질 해간 3·24총선이 낳은 특채의 적기인 군부세자 부정 투표까지 민자당의 자유경선이라는 정국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대신 반민자당 둘러싼 서 무마해보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게다가 상박하박가 아닌 상부하박을 강요하여, 노동자는 실질적인 물가인상률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임금인상률로 임금억제 정책의 또하나의 수단인 총애임금제를 필두로 한 전술적으로 고도화된 노동운동에 대한 집요한 탄압도 더한층 가속도가 붙고 있다.  
▲ 이러한 현정권의 부패와 부패 그리고 탄압의 무대속에서 민중들의 더욱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며 슬세도 변함없이 강경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5월 열사들의 1주기와 함께 5월은 더욱 뜻깊게 우리에게 찾아왔다.  
▲ 이방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5월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졸업하기만 한 '투쟁의 5월'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연례행사 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되찾은 특채정권 타도, 민주정부 수립의 함성이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가 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어머니 날이 되어도 부모님 가슴에 케네이션 한송이 담아줄 수 없는 조국의 미래 위해 산화에 간 열사들을 대신하여 내 일을 사는 조국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담태위 고운 꽃 한송이를 담아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강인숙)

- 지 면 안 내
- 3면: 직원노조 5월1일 전면 파업 돌입
  - 4면: 다극화로 나아가는 국제정세
  - 5면: 아프간사태 분석
  - 6면: 총애임금제의 본질
  - 8면: 등록금 투쟁 평가
  - 9면: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특집면
  - 10면: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등투 평가

진리·평화·창조

### 한국외국어대학교 『外國學綜合研究센터』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산학협동의 산실 —

세계를 호흡하는 지성과 미래지향적 국제인을 양성하는 의대는 21세기를 대비한 학문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대는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될 지역학 전문 연구기관인 『외국학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건립을 위해 의대 발전위원회는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날로 성장하는 의대인은 2000년대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發展後援會  
HANKYU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한

중간고사 기간도 지난 후에 끝났고 가벼운 수험여행도 무사히 마쳤으리라 믿는다. 이제 계절은 바야흐로 한 학기의 중간 이후로 들어가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7, 8주가 지나면 학생들은 이제까지 배운 교과목을 중심으로 시험을 보므로써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학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시험지나 리포트용지위에 논리적으로 뚜렷한 사색의 논술의 기법도 배울 것이다. 그런데, 면학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볼 때에 대학 구성원들에게 있어 시험기가 기어올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일은 의미있는 일 일 것이다.

교수의 입장에서 시시콜콜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중간고사나 이번 형태의 시험 이후에는 며칠 내에 반드시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이다. 대학교수 본연의 책임중의 하나는 한 학기 과정의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정당한 공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일이다. 시험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권익이 1차, 4차의 효과와 연을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의 그 과목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시험일 공부에 임할 것이고 학문수련에 대한 노력의 동력을 얻을 것이다. 또한 다음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결국 국가 수장하는 과목들도 더욱 심신한 자세로 임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면학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실상 면학 분위기를 전진시킬 수 있는 여건은 다른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설과 환경이 면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시설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양 교정에서 도서관과 열람실을 갖춘 건물들이 있지만, 방남방 시설이 아직 미비하고 저수 수 배부족이라고도 하고 있다. 교수들의 연구실도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잘 안되어 있고 스니이 들어오는 건물도 한, 두시간 정도 이외에는 공극하지 않아 시설상 방학중에는 학교에 나오지말라는 뜻과도 같은 것이다.

연구실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한 번 더 덧붙여 보자. 우리가 치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교수들의 연구실이 너무나 자주 이용된다는 것이다. 당시 말하자면, 보리밭에 따라 교수들은 '이것이'를 끌고 종종 배를 채우는 도중에 열이 버거가며 대개의 경우 연구실 아닌 사무실을 찾아 나선다. 이런 모습은 다른 어떤 대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이다. 한편 비정전 연구실은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복도를 중심으로 같은 과 교수들의 연구실이 나란히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 발전의 시급추진도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한 다른 어떠한 일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면에서 본 시국은 어떠한가? 본교가 교양된 수준에 달하기 위해서는 교정에서 우선 조용한 분위기에 공부할 연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강의실에서는 학문토론의 열기가 가득하고, 숲 아래에서는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낭만이 구겨되어야 한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정서, 북소리들 기타 강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은 어느 지경된 장소일 시간에 한하고 전체 교정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교정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나라 대학원의 정서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서도 무슨 캠페인을 벌여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밤에 교정의 잔디에서 난대없는 교정방향을 우리들 손에 놓고도 남는다.

결론적, 지적 활동이 향상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정화된 환경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의 막힘없는 진척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속의 위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백지대자보'를 사랑해 주세요

메시지 정제분석 속에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그에 대한 흡산들의 재치있고 명쾌한 그러면서도 명쾌한 관점을 견지한 한 마디를 기필코 써주세요. 백지대자보는 흡산이 있는 교정 곳곳에 붙어 흡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재치와 풍자를 담아 보세요. (이은부)

흡산의 소리

할 말 있을엔 참지 말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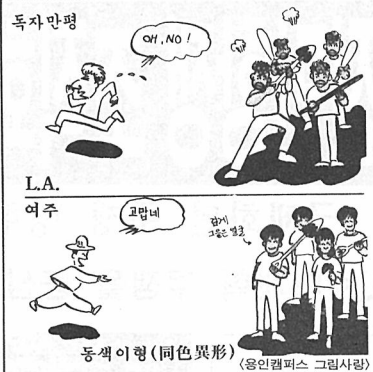
세상은 넓고 할말도 많지만 지금의 우리네 세상은 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혼자서 풍광 뛰어들었던 답답한 가슴을 여기에 풀어 놓읍시다. 흡산의 소리는 바로 여러분의 대화 광장입니다. 2층 원고지 2~7매의 글로 아니면 독자편방과 독자사진으로 '흡산의 소리' 대학광장에 참여하십시오. 매주 금요일까지 학생회 2층 학생기자실로 원고를 가지고 오시면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할 말 있을때는 절대로 기어올라 앉지 말고 앉지 마세요.

취업준비와 '91학년도 취업현황

1. 취업준비에 대한 개괄적 제언 취업이란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본다. 즉, 저학년부터 면학에 정진한 결과로 곧 4학년때나 졸업후 자기의 진로와 직결되는 것이다. 4학년이 되어서, 그것도 2학기가 되어서야 취업포기도를 갖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후회이나 안쓰럽고 딱하기도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적어보려 한다. 첫째, 전공수업 및 학교생활권위를 소홀히 하지말라는 것이다. 일 단 지원 입학한 학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몰두하여 지체가 공인하는 전공분야 실력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학교생활권리이고, 나중에 유학이 거더라도 학업이 E성이라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전공수업 및 학교생활권리를 소홀히 하지말라는 것이다. 일 단 지원 입학한 학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몰두하여 지체가 공인하는 전공분야 실력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학교생활권리이고, 나중에 유학이 거더라도 학업이 E성이라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셋째, 전공수업 및 학교생활권리를 소홀히 하지말라는 것이다. 일 단 지원 입학한 학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몰두하여 지체가 공인하는 전공분야 실력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학교생활권리이고, 나중에 유학이 거더라도 학업이 E성이라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영보법에 가려지는 탁아 현실

대학인은 사회에 나가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예비노동자이며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졸업후 사회적으로 준비를 하는 예비노동자이며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졸업후 사회적으로 준비를 하는 예비노동자이며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졸업후 사회적으로 준비를 하는 예비노동자...

Table showing employment statistics for 1991. Columns include University, Number of Applicants, Number of Jobs, and Employment Rate. Rows include Seoul, Yonsei, and Total.

Advertisement for '백지대자보' (White Paper) with a logo and text encouraging students to submit creative and witty comments on campus issues.

Large advertisement for Samsung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he slogan '첨단기술의 내일을 여는 것은 젊은이의 몫입니다' (It is the duty of the young to open the future of advanced technology). Includes text about Samsung's commitment to technology and education.

# 직원노조 노동절 기해 전면파업 돌입

## 노조 인사·경영권배제, 단체행동 불려 학교측, "등투로 협약안 마련 못했다" 주장



본교 조합원들이 1일(금) 열린 '총액임금제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본교 92년 단체협상인,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과 대학당국 사이 9차례에 걸친 단체협상에서 양측간의 맹목적인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결국 직원노조에서 지난 5월1일(금)을 기해 파업을 돌입,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직원노조의 파업결정은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협상과정에서 양측이 크게 의견차이를 나타내면서 인사·경영권 배제, 임금협상 부분, 유급휴가 상 제도, 승진부담 등 크게 세부분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거의 없는 직원노조에서 지난 4월14일(화) '서울캠퍼스 및 용인캠퍼스 전체 조합원 인사소속을 통해 노동쟁의 행위 결의에 대한 사할을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업결의 투표권을 실시, 제13회 조합원 총회 40명중 1백32명(1) 찬성파에 찬성투표 1백32명, 반대투표 11명, 태권 10명, 투표 1명, 기 19명(2)의 과반수가 집계된 전면파업을 결의하고 15일(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일(토), 21일(화) 2회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노조자정이 진행되는

이날도 직원노조에서 강경 입장을 보이고 대학당국에서는 제7차 단체교섭을 개시할 예정인 4월20일(월) 요점, 협상을 재개했으나 9개 조항이 조정할 의의에 불과했고 끝이 24일(금) 28일(화) 28일, 9차 단체 교섭이 직원노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에 따라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학은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합의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90년 이 이 체결된 조항을 확인하는 수 준으로 20개 조항만을 합의하였다.

한편 단체협상과정에서 행정사학으로 남겨진 인사·경영, 임금협상, 유급휴가 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학당국의 입장이 확고하고 부동함에 따라 직원노조측에서는 4월23일(목) 노동조합 위원회와 협의의 개의를 위하여 각종 폐쇄회기구를 설치할 것과 파업시 조합원 행동조

침 등을 마련하고 27일(일) 행정사학위원회의 발의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쟁의 및 단선적 결의하였다.

이와같은 전반적인 단체협상 의 흐름속에서 행정사학이 된 새시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인사·경영부분은, 대학당국이 인사·경영은 고용유지 고유권인 노조는 주장에 반해 직원노조측은 직원의 정당한 권리가 자신의 의사 아닌 대학당국

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규제되는 부당한 것으로, 불공정한 인사과정의 배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인사·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임금협상인에 있어서는 직원노조의 협상요구가 개선됐으나 대학당국은 현시점 정점이 되고있는 총액임금제 적용여부 등 특구금 문제 미타결을 이유로 협약안 조자 미타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번 단체협약에서 보여주는 대학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는 원래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추세가 노조의 인사·경영권 부분 확대하고 어느정도 인사·경영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일방적 협상을 고려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 이와같은 노사관계에서 맺어지는 임금협약은 대학당국이 등록금문제와 연계해 임금 협약안 조자 마련하지 않는 것은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려대·한양대 등 타대학 직원노조에서 실시하는 유급휴가 상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학당국의 입장은 대외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재봉 기자)

# 서울, '용인 이전 철회' 서명운동 배지판매로 광고지금마련

지난 4월28일(화)부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붉은발찌를 '외대발찌'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학생회가 보장과 왕산 이진태 개혁 철회를 위한 7천원 서명운동과 '외대사당 배지 판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전 서명운동과 배지판매운동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과정을 거치면서 요구하고 있는 외대발찌를 위해 자축금으로 캠퍼스 이전 및 학사행정에 학생회가 보장을 대학당국에 계속요구해 왔으나 대학당국이 발의한 임정장담이 없자 학생

# 세민전, 예산 문제로 '빼적' 대학당국, 고액 이유 예산 미지급

'인류평화위원회' 92 세 계인류평화위원회(이하 세민전) 행사가 27일간의 준비기간을 넘겨 놓고 대학당국에서 예산 책정 부분이 해원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19개 학과 6백20여명은 6월3일(수) 첫 공연을 앞두고 두달여 동안 준비를 해왔으나 대학당국이 아직까지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외상 구비 및 식대비, 각 학과 행사보조비 지급이 보류되는 등 행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행사계획을 준비해 온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세민전 준비위원회(위원장, 서학·이태리 86학번 박정복)측에서는 소요경비와 관련, 대학

당국과의 협의속에서 최대한으로 절소한 행사를 진행한다는 목적으로 4월31일(수) 만원의 가 예산서를 대학당국에 제시했으나, 대학당국은 소요경비 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준비위원장 정병영 군은 "대학당국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준비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대적으로 삭감하여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준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해 대학당국이 선뜻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행사 취지에 있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학당국의 재정적인 목적

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인정되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병영 군은 "정치적 목적은 배제된 행사이며, 6월3일(수) 행사일정을 설정한 것도 작년 6·3사건에서 행사규정의 축소 및 학내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준비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대적으로 삭감하여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행사당일 경인지역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본교의 행사를 알리고, 우수인업 유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각 언론매체를 통해 이번 행사를 알리자는 계획도 설정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산액을 이유로 미지급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학당국의 처사는 경제적 인 행사에 당사자인 대학

대학이 행사 준비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행사발행권 제재에 있어서 준비위원회의 즉 이을 재확인 관계하고 이의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은 취지를 밝힌 바 있으나, 대학당국은 '행사발행권'을 재확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반론과 함께 용인캠퍼스 지원금 회정이 모두 끝난 상태이므로, 기이상의 추가계산을 입급하는 태도를 보여며 주로 예산을 줄여보라는 태도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이와함께 행사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외부기금으로의 협찬을 요청하는데 대해서도 대학당국은 각 기금의 운기능에 산외계 이후인 지난달 22일(수) 중앙노동회의에 협찬금품을 준비위원회의에 발급함으로써 행사비 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

# 용인도서관 사서행정 서울로 일괄 이전

## 서울 하부단체로 위상 하락...인건비 절감위한 편의적 발상

용인캠퍼스 중앙도서관 행정 업무 기관인 '사서과'가 대학당국에 의해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일괄적인 사무인무를 수행하도록 재정조정을 따른 후행부부 용인캠퍼스 중앙도서관 사서인원에 의해 비처분 장서들이 서울캠퍼스로 옮겨지는데 용인캠퍼스 도서관의 위상이 전멸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캠퍼스는 89년 1학기부터 서울캠퍼스로부터 독립을 위해 도서관장 및 사서과장을 각각 발령하고 91년 중앙도서관과 함께 사서정원 4명을 고용하는 등 독자적인 중앙도서관으로써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올해 대학당국은 발행정원 없이 사서과장을 일괄 서울캠퍼스로 이전 시키는가 하면 서울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하고 용인캠퍼스는 그 하부단체로 하는 가능과 조직정원이 학내 복지사업에 대한 의무자축의 책임이 생김되지 않아 원하의 책임과 예산절감 효과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캠퍼스 도서관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설치기념일에 입학하여 학생수와 도서관 규모에 따른 행정직원 고용수에서 서울캠퍼스는 26명(작년 23명), 용인캠퍼스 14명(작년 8명) 등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서울캠퍼스는 이번 조치로 중앙도서관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용인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인

수를 줄이고 이로 인해 앞으로 열람기능 및 대출업무만을 수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용인캠퍼스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용인캠퍼스에 독자적인 부서가 있게 된다면 앞으로 고용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로 보여진다"는 말을

남겼다. 이번 조치가 행정직원 인수를 통한 인건비 절감만을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가장인부를 맡게된 용인캠퍼스 도서관 행정직원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치움을 간접 시사

했다. 한편 학내 전반적인 행정조정 및 인사정원은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조직의 의견과 관계가 다른 업무분할은 알고 있고, 이번 조치는 용인캠퍼스 도서관에서는 "대학당국의 방침에 따랐을 뿐이다"는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학당국이 그동안 장기미결 계회원에서 용인캠퍼스의 '캠퍼스 통합'을 상징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번과 같은 조치는 남

북이 가지 않는 태도로 보여진다. 특히 현재 용인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 대한 "행정조직"의 장서들을 분부하지도 않은 서울캠퍼스 이전화, 일괄전환 이후 용인캠퍼스 도서관은 발산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더 많은 점이 지적된 수 있다. 또한 한 캠퍼스의 도서관을 사서업무 담당부서로 삼은 업무기능을 위한 도서관으로만 방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것도 아울러 문제가 되고

# 용인, 학내사업체 계약문제 표면화 미계약으로 근로장학금 제때 지급 못해

용인캠퍼스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협동조합)에서 실시해 온 '근로장학금' 선별형 장학금 지급사업이 학내 복지사업에 대한 의무자축의 책임이 생김되지 않아 원하의 책임과 예산절감 효과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주 대학총학생회 집행이인 총무처장 양승윤(다인교)의 주도로 협상을 통해 미계약조정을 시도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면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지난 1일(금) 다시 면담을 제정한 양승윤 단은 대협협이 이번까지 장학금을 정리하여 집행하여 장학금 중사서 4원(월)의 면담도 모두 끝나는 것에 일괄적인 장학금 지급은 가능하게 됐다.

대학당국은 이에 맞서 대협협이 이것은 강행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차이에 관계로 인하여 원래 학내 전반적인 복지사업체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고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협협이 이러한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주 대학총학생회 집행이인 총무처장 양승윤(다인교)의 주도로 협상을 통해 미계약조정을 시도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면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지난 1일(금) 다시 면담을 제정한 양승윤 단은 대협협이 이번까지 장학금을 정리하여 집행하여 장학금 중사서 4원(월)의 면담도 모두 끝나는 것에 일괄적인 장학금 지급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대학당국이 오는 8월(금) 중앙노동위원회를 포함하여 알려지지 않았으며 대학당국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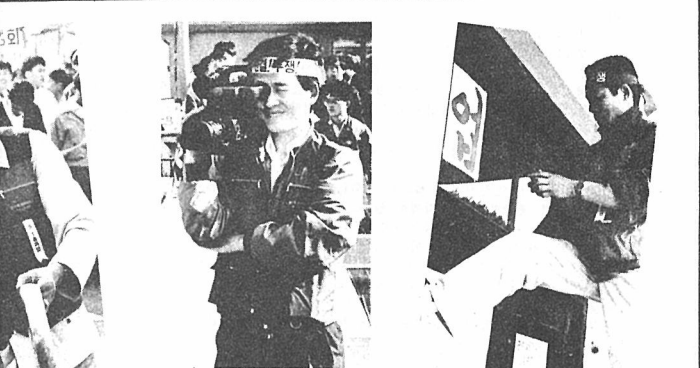
수상기자
김남욱(상장·경희)
김원희(상장·경희)
김종호(상장·서이)
민중호(인문·천민)
이승현(상장·서이)
최정호(상장·서이)
김정호(상장·서이)
최정호(상장·서이)
최정호(상장·서이)
최정호(상장·서이)

(이상 10명 5월5일자)



지난 5월1일(금)부터 총액임금제 저지와 인사·경영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간 본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 이 피끓는 외침을, 이 자유의 몸부림을 그누가 가로막는가? 그누가!



제26대 승리하는 총학생회 제13대 일대도약 총학생회

















# 청년 법학도에게

이 땅에 무엇을 바라는 법의 정의를 노래한 것인가 진실이 희박하다 못하여 그 죄통기는 생생한 진실이 창조된 전라중지급 소박한 상식을 깬다는 공화국 법치주의의 하루 눈을 감았어야 했다 다들 백치로 살았어야 했다 무슨 맘으로 밤을 공부할 것인가 무슨 엉뚱한 환상이 법전 구축의 달달 환을 것인가 그대는 법학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대는 법학도임에 이 순간 자학을 느껴야 한다 이젠 법학도 임에 한미의 지향도 못하는 바제인간이 되어 버렸는 지도 모른다

우리네 무식한 법학도의 진실과 제대를 갈난 법학도의 허세와 외한 함성은 마흔하늘에 날라버린 자흔의 시나리오에서 제수 넘는 광대가 되어버렸다 청년 법학도여 / 그대는 이기 기와의 신음의 동포 민중의 에타는 절규를 들어야 한다 그대는 헌지가 모반과 배반의 무리로 우물한 분단조국의 뜨거운 소망을 살리아한다 누가 우리에게 법의 권리와 쉼을 강요하는가 누가 우리에게 수권한 청년의 조국인실 희망에 죄와 행방을 쫓우는 법을 지키고 따르려는가 청년이여 / 분기행진 일어나 민주정부를 조직으로의 법학과 봉인조국으로의 법학과

인간해방으로의 법학을 위해 민중의 절사될 각오로써 민중의 편사될 각오로써 민중의 군인될 각오로써 그러나 내 이 작은 손목아저 로 이 글에다 학우 여러분 / 5월입니다. 무정함이다 / 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무남무색(無名無色) 아무 색깔(이념)도 없고, 부끄러워 볼 것이 없는 한 일인지...

보아라 혐오스런 것들 군부표부정에 그런 일 없다 국방부 오리발과 안기부 흑색선전 탈법에 혐의를 못찾았다 검찰 안기부 공생과 유서대필 범죄의 사안이다 황당한 법해석과 국과수 분사위조 뇌물수수 비굴한 공권력과 인간다운 삶 위한 보은-권리의 향기에 인간성 말살의 유죄 선고와 굶기야 이들 죽이고 아비 가부는 패륜의 권력과 ..... 조국의 근간을 흔들 유란한 이 모든 짓거리의 주범을 물리치는 일 이제 법학도의 권리요 의무가 되었다 청년 법학도여 / 저 저열한 폭도들에게 당당히 맞서 역사상생의 의연한 자세로 반역의 유죄를 선고하라

내 조국 우리의 겨레 마음과 마음 손과 손 이고 이어 이시어의 융성한 집천한 겨레 함께 할 우리의 행정부 우리의 사법부 우리의 군대 민주정부수립 대헌법의 무장을 선포하라.

김석경 (법·법학 92년졸)

# 슬픔이 잉태한 희망의 노래

'희망'과 '무정'이라는 낱말이 어울리는가? 게다가 사람은 많이 있으리라. 무정이 아니라 노는 이 땅에서 작은 열매가 하나도 피는 법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러나 내 이 작은 손목아저 로 이 글에다 학우 여러분 / 5월입니다. 무정함이다 / 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무남무색(無名無色) 아무 색깔(이념)도 없고, 부끄러워 볼 것이 없는 한 일인지...



4·26 창작단의 추모시집 '사랑한 것이 많이 남았는데'를 읽고

게 빛나는 아기 기저귀? 하나 날아들어 필리핀과 있음이. 시집의 시작은 놀라움에도 강경대 앞사의 아비남에게 쓰인 시로, 아들을 잃은 무정(無情)의 파문들과 더불어 이 슬픔을 독재정권에의 무정과 민중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과 민중을 위해 나가리라는 결의에 한 구절들로 보는 이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말하는 철학'이라는 4·26창작단의 조직창작 서시에서 총체라는 한 학우와 향이라는 한 여학생을 중심으로 학생회 단부로서 고군분투하는 장편인 우리 동지들의 회화로서 민중예술의 혼을 살리다가 위한 뜨거운 정열의 정에서 위대한 신뢰와 사랑, 운동에 대한 신뢰, 그것의 극복 중의 추세가 맑고 강렬한 문제로 힘있게 구사되고 있다.

시집을 읽이 나가며 나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감동과 더불어 나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뼈저린 반성으로(시집을 읽다보면 누구나 자연스레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만드는 힘이 이 '시'들 속에 있다)인해 한편 피로고 한편 환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혼란과 무기력의 시기가 너

무 길지 않았는가? 우리 학생 운동은 스스로 진실하고 진지 해온 과방한 투쟁의 역사! 있었지만 / 아직도 진강하고 있고 / 아직도 살아나기 신념을 잃지 않고, 혼란과 무기력에 빠진 동지들에게 그 따뜻한 손을 내밀며 '외로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가? '이 시집의 특별한 점을 생각해 보니 진지하게 읽어 볼 수 있는 시들이 많이 있다. 그 시들 속에 '새하얗게 빛나는 아기 기저귀'의 희망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을 무너뜨린 힘을 키워' 불꽃 자라는 세시대의 아기를 자신이 정태했음을 느낄 것입니다.

홍기복 (사법·합교 4)

## '주제글'을 모읍니다

- 주제 : 그대여 군세개 / 원고마감 : 5월29일 (금)
- 서평도 과고 전달에 꽃잎에 묻어오는 계절입니다. 봄날의 푸른 햇살을 뒤로 하고 수많은 젊은 넋들이 신음하고 절규하며 쓰러진 간 거 언니, 그 5월의 뜨거운 거리를 함께 내달리던 우리의 동료, 선배, 후배들의 맑은 웃음이 지금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안타깝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고개숙인 채 머뭇거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이제 '그대'에게 전하러 달려 갑시다. 아직은 봄햇살이 그리지만 할 처가을 강박에서, 또 그 이단에서 몸을 피해 다니면서 이 땅의 자유와 민주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을 우리의 동료, 선·후배와, 서머용과 그리움의 눈물로 가슴을 태우고 계절 우리모두의 '이단'에게 이제 용기와 사랑을 전합시다.

5월 민족문화교실 -우리마당 문화학교 주최 '우리마당 문화학교'에서는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5월 1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5월 민족문화교실을 개최한다.

총론-태주 원·우, 7기 30분  
태주-태주 원·우, 7기 30분  
민주-태주 원·우, 7기 30분  
사건-태주 원·우, 7기 30분  
▲협력할 문인회: 우리마당 문화학교(313-7169)

“조국 사랑에는 나도 열혈청년이 라네.”

지난 4월28일(화) 명지대에서 있었던 '그 강경대 열사 추모제 및 5월무정선 포식' 중에서 (김인숙 본보 편집장)

1991년, 봄 눈물로 쓴 보고서

“최승희 지음 ‘나는 다만 기록에 투고자 했다. 그해 봄날의 향수를 싸움용. 그리고 아름답고도 슬프이 땅 양사들을 말하다’(저은 이 서문중에서) 꼭 1년전에 절규하며 산화해 간 넋들과 그 뜨거운 거리를 기억할 것이다. 이 책에는 작년 4월25일부터 6월20일까지의 가슴아프고 놀란만한 갖가지 사건들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웃피범 3권 2백번) 새벽별이 뜨면 푸른 강이 보인다. -김재희 지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 고민하게 된다. 특히 민족의 길에 선 이 땅의 청년들에게 있어 이러한 고민은 냉철하고 진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가족문제, 연애문제, 사회 진출문제, 여성문제 등등 삶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는 이 책은 지금 이러한 삶의 문제로 방황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독두피범 4권 8백번>

“이제 그대들을 가슴에 묻고 달려가렵니다 식민의 밤 뚫고 밝아오는 자주의 새벽을 맞으라...”

4.5월 산천에 산화해 간 애국열사들을 추모하며

수많은 벗들의 피땀함된 몸을 가슴에 묻으며 조국의 무엇인지 애국의 무엇인지 한 사람의 목숨과 운명은 무엇인지 바보처럼 나는 묻고 싶었다. 조국이며 식민의 밤 피흘리는 조국이며 (최은희의 '네 고향의 길이 물라 나는 외롭다' 중에서)